

<1등>

제 2회 成均 한글 백일장

No. 1

大學	南京大學	學科	韓語專業	學年	二年級	姓名	(한자) 譚浩	(한글) 담결
----	------	----	------	----	-----	----	---------	---------

100

200

300

400

500

나눔
"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
한 말을 하라.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
싶으면 남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.
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
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라." 하고 험빈은
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.
정말 따뜻함을 주는 말이 아닌가. 이
세상은 결코 우리 혼자만이 사는 세상
이 아니다. 한 분명한 사실은 보다 좋
은 삶을 살려면 우리는 나눔을 잘 알아
야 한다.
주위를 둘러보면 어렵고 힘들게 세상
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. 그들 중
대부분은 본의가 아닌 이런저런 원인으로
고생하며 지낸다. 우리는 사회 구성
원으로 서로 차가운 눈으로 방관하면 안된
다. 인간성을 간직한 채 위로도 주고
배려도 주고 도움도 주어야 한다. 함께
사는 사회와 세상 속의 편리함과 행복
함을 아낌없이 그들과 나누야 한다. 이
래야 객관적인 세계 외의 무순한 개인적
인 성격을 떠는 나만의 세계 서로 간
의 교착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.
나눔의 마음이 필요할 때 인식해서는

제 2회 成均 한글 백일장

No. 2

大學	南京大學	學科	韓語學	學年	二年級	姓名	(한자) 譚潔	(한글)담결
----	------	----	-----	----	-----	----	---------	--------

안 된다. 어려운 이웃 뿐만 아니라 친한
 사람을 대할 때도 나눔의 마음을 품어
 야 한다. '슬픔이 나누면 반이 되고
 기쁨은 나누면 배로 된다'는 말이 있
 겠다. 자기가 힘들고 외로울 때 이
 들은 항상 곁에 있어서 얼마나 힘이
 되는지 모른다.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부
 터 고독이 가득한 인생 여정을 시작하
 다. 우리의 육체가 더 이상 누군가에게
 의존하지 못하듯 우리의 정신 세계도
 다른 사람만의 세계와 함께 한 덩어리
 로 합하지 못한다. 그러나 사람들 사이
 에는 삶의 교착이 종종 일어난다. 우리
 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애써 남의
 삶과의 교착을 확대하는 것이다. 그 방
 법들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
 나눔을 줄 아는 점이다. 유익한 정보를
 서로 나눠 주고 각자의 삶에 도움이
 된다. 삶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다고
 삶이 꼭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. 그러다
 서로 간의 나눔으로 우리는 더 이상 답
 답하고 좁은 나만의 세계에 갇혀 있지
 않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보인다.
 사실, 개인 사이 뿐만 아니라 국가 간
 에도 나눔은 존재해야 한다. 소중한 우

No. 3.

大學	南京大學	學科	韓語專業	學年	二年級	姓名	(한자) 譚洁	(한글) 담결
----	------	----	------	----	-----	----	---------	---------

[illegible]

나	눔	은	아	름	답	다	.	이	런	아	름	다	움	은	사
람	들	이	외	모	가	뛰	어	난	이	들	을	바	라	보	며
느	끼	는	즐	거	움	과	는	넓	이	와	결	이	가	다	르
다	.	외	모	같	은	것	을	대	했	을	때	우	리	는	

가	뵈	고	일	시	적	원	기	뵈	을	맛	볼	뵈	가	습	
깊	은	감	동	을	느	끼	지	않	는	다	세	상	사	는	
보	람	을	느	끼	도	록	깊	은	감	동	을	주	는	것	
은		바	로	나	눔	이	다	마	음	깊	숙	한	곳	에	서
우	러	나	오	는	무	형	의	멋	또	는	인	격	전	체	

에	서		풍	기	는		멋	이		담	기	는		나	눔	.	이	런	
나	눔	은		우	리	의		삶	의		맛	을		더	할		수		있
는		것	이	고		우	리	의		정	신		의	식	의		새	로	운
경	지	로	의		돌	입	을		가	능	하	게		하	는		것	이	다.

		"	생	활	은		거	울	이	다	.	내	가		웃	으	면		생	활	
도			따	라			웃	어		준	다	,	마	찬	가	지	로		나	눔	도
이	런			매	력	을		지	니	고		있	다	.	주	고	받	는		과	
정		중	의		감	동	과		행	복	이		아	닐	까	?					

[illegible]